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신임 대표회장에 권순웅 목사 추대

13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42회 정기총회' 개최
신임 상임회장에는 예상 백석 총회 이선 목사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신임 대표회장에 예상합동 증경총회장 권순웅 목사(주다산교회)가 추대됐다.

제42회 한장총 정기총회가 13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총대 220명 중 출석 113명으로 개최한 가운데 이날 대표회장 선거 등 각종 회무가 처리됐다. 이날 제42대 한장총 대표회장에 권순웅 목사, 상임회장에 이선 목사(새로운중앙교회, 예상 백석)가 박수로 추대됐다. 한장총 선거규정에 따르면, 대표회장과 단독 입후보한 상임회장은 사전 발표 이후 박수로 추대할 수 있다.

권순웅 목사는 이날 사전 발표에서 "뺨대 있는 신앙을 추구하겠다. 첫째 뺨대는 개혁 신앙과 장로교 신앙이다. 이를 기초로 살림 부흥으로 한장총을 섬기고자 한다"며 "둘째 뺨대는 연합이다. 연합의 정신을 갖고 모두 하나로 모이는 한장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전 세계에서 일고 있는 K-컬처 등 한류 붐의 흐름 가운데 한국 장로교도

K-컬처로 이목을 받는 상황에서 한장총이 이러한 시류를 잘 살려 전 세계의 부흥 운동을 주도하겠다"고 했다.

이선 목사는 "상임회장으로서 대표회장을 잘 보필하고 섬겨 우리 한장총이 하나 돼 25개 교단과 잘 연합해 발전하도록 겸손히 섬기겠다"고 했다.

신임 임원진은 아래와 같다. 사무총장 이석훈 목사(백석), 총무 강동규 목사(개혁교회), 협동총무 박용규(합동)·정성열(합신)·김종명(백석)·이훈삼(기장)·김고현 목사(보수), 서기 장인호 목사(대신)·부서기 김명준 목사(호헌), 회록서기 조세영 목사(개혁교회), 부회록서기 김종인 목사(예정), 회계 김재신 장로(합신), 부회계 김경환 장로(합동), 감사 김영찬 목사(한영)·김순규 목사(개혁)·이홍섭 장로(대신).

이날 1부 예배에서 '뺨대 있는 연합신앙'(창 50:24-26)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한장총 직전 대



권순웅 목사(한장총 신임 대표회장, 왼쪽)가 전환 목사(한장총 직전 대표회장, 오른쪽)로부터 당선증을 부여 받고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한장총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단체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표회장 전환 목사는 "본문에서 요셉에게 꿈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였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삶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했다. 뺨 있는 신앙은 말씀 앞에 죽고 다시 사는 것"이라며 "이것이 순교의 신앙이다. 17세기 유럽 장로교 성도들은 자신들이 남긴 해골로 순교 신앙을 지금도 증명하고 있다. 일제시대 한국교회 대부분이

신사참배를 진행했던 당시 상황에서 주기철 목사 등 순교자들은 신사참배를 거절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다"고 했다.

이어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시장 바닥처럼 장사치의 소굴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해 뺨 있는 신앙을 추구해야 한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부흥을 가로막는 두 가지 요인은 교만과 세속과 결합한

혼합주의라고 했다"며 "영광은 죽음과 자기희생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 나그네 인생에서 우리의 본향이 천국에 있음을 믿고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는 우리가 되자"고 했다.

한편 한장총 대표회장 취임식은 오는 27일 오전 11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노형구 기자

한국교회 부흥 원동력은 '제자훈련'과 '새벽기도'

한교총, "한국교회 오피니언 리더" 140명 대상 설문 결과

'제자훈련과 성경공부' '새벽기도' 등이 한국 기독교 140년 역사에서 교회 부흥을 가능케 한 동력으로 꼽힌 설문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교회총연합회(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한교총)는 최근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기독교 140주년 기념 한국교회 비전대회'에서 목회데이터 연구소와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 기독교인 1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교총은 이들 140명이 "한국교회 오피니언 리더"라고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기독교 140년 역사에서 부흥을 가능케 한 동력으로 '제자훈련'과 '성경공부' 51.1%, '새벽기도' 48.9%, '학원복음화 운동' 41.4% 순으로 답했다.

기독교가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강화할 활동으로는 도덕성 회복 운동이 가장 높은 응

답률을 보였다. '도덕성회복운동' 58.6%, '저출생 대책개발' 50.0%, '기후 위기 대응' 47.9% 등이었으며, 교회 성장을 위해 강화할 것으로는 '기독교의 본질 회복' 77.9%, '도덕성 회복' 65.7%, '기독교인내양성' 41.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방 전후 한국교회 기여도를 점수로 조사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기여도는 해방 전 78점, 해방 후 70.7점으로 나타났다. 해방 전에는 '항일 민족운동'이 가장 큰 기여라는 응답이 85.0%로 가장 높았고 그중에서도 '3.1운동' 85%, '근대 서양병원의 시작' 82.1%, '근대교육의 시작' 79.3% 순으로 높은 평가를 보였다.

해방 후에는 민주화운동과 아동복지에 대한 기여를 가장 높게 평가했다. '민주화운동' 57.1%, '고아원 설립 등 아동복지' 55.0%, '전후 구호사업' 51.4% 순이었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구호 활동과 문맹 퇴치, 통일운동, 노동자 및 이주자 인권 운동 등에도 기여했다고 응답했다.

한교총은 "한국교회의 정치적 태도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이 81.4%로 높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가치관을 지닌 정치인을 양성해야 한다는 응답도 73.6%로 확인돼, 교회의 정치 참여에는 반대하지만 한국교회가 정치인과 사회적 리더를 길러 직접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목회자, 상실감 있는 이들
조심스레 돌보며 애도해야" >> 3면

北, '공개처형'과 '정치범 수용소' 존재 간접 시인

유엔 인권 심사에서 정치범 수용소 해체 등 88개 권고 거부
유엔 인권 검토에서 거부된 권고안들, 나머지는 내년 2월 답변 예정

북한이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에서 제시된 294개의 권고 사항 중 88개 항목을 거부하고, 나머지 권고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는 현지 시각 12일, 이러한 소식을 전했다.

지난 7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에 대한 네 번째 UPR 심사에서 정치범 수용소 해체와 강제 송환자 고문 중지, 억류자와 남북자 송환 등 여러 권고가 제시됐다. 북한은 이 중 88개 권고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이는 UPR 보고서 초안에 "주목한다"는 표현으로 나타났다. 이 표현은 사실상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이 거부한 88개 권고안에는 한미일 세 국가가 제시한 13개 항목이 전부 포함되었다.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심사에서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고 부당 구금된 정치범을 석방하며, 공정한 재판과 기타 보호 조치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북한의 '3대 악법'으로 알려진 반동사상문화해적법, 평양문화어보로법, 청년교양보장법 폐지를 요구했다. 터너 특사는 강제 노동 중단과 남북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이산가족 상봉 촉진도 촉구했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며, 남북자와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특히 김정숙, 김국기, 최준길 등 북한에 억류된 6명의 한국 국적자 석방을 강조했다. 일본대표부의 오이케 아츠유키 대사 역시 납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고령화되는 점을 고려하여 북한이 납치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번 UPR 심사에서는 북한의 러시아 전쟁 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권고안도 처음으로 나왔다. 라트비아 대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으며, 우크라이나는 "국제법 준수와 러시아와의 전쟁 공도 중단"을 요구했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했다.

북한은 이번 심사에서 공개처형 관행을 일부 인정했다. 박광호 북한 중앙재판소 국장은 사형이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집행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복적인 범죄자나 극악한 살인범에 대해 피해자 가족의 요구로 공개처형이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북한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정치범'이나 '정치범 수용소'라는 용어는 없지만, 반국가



지난 7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심사(UPR)가 진행됐다. ©UN TV

범죄자와 이들을 수감하는 개혁 기관이 존재한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그는 "적대 세력이 파견한 간첩과 테러리스트,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사람들을 별도의 개혁 기관에 수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북한 UPR 심사 결과는 13일 공식 채택됐다. UPR은 유엔 193개 회원국이 4년 반마다 서로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고 권고사항을 주고받는 절차로, 북한은 2019년 5월의 UPR에서 262개의 권고 중 132개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 이행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홍은혜 기자

하나뿐인 자리! 한번뿐인 기회! 올림픽공원을 당신 앞에

에스아이펠리스 올림픽공원

에스아이펠리스 올림픽공원

선시공 후분양 아파트

상대천

강동대로

올림픽공원

에스아이펠리스 올림픽공원

PREMIUM 6

숲세권의 힐링라이프

초고속 멀티교통망

비규제 입지조건

S1펠리스만의 특화설계

다채로운 생활인프라

완벽한 입주환경

문의: **02)486-4388**

●시행: (주)성우파트너스 ●시각: 교보자산신탁(주) ●시공: 에스테크건설(주), (주)이엔건설